

濟州島 심방에 대하여

崔 吉 城*

I. 序 論

제주도 심방에 대하여는 주로 제주도 학자들이 많은 자료를 발표하여 알 수 있고, 필자도 약간의 조사 경험을 통해서 그들 연구를 효과적으로 이해 하며 자신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민속이나 문화를 고찰할 때 주변문화로서 보고 중앙문화의 변형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라면 그 남쪽으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과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는 일정한 지역으로 분포되기도 하지만 한편 문화적 단위로서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하여 바로 이웃하는 오끼나와 문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는 반드시 맞는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는 가까와도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오끼나와는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제주도인이 표류하여 오끼나와에 표착한 역사적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접성 자체가 바로 문화적 인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구조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식물성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 무속을 생각할 때 우선 누구나 심방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심방은 入巫과정에서 巫病的 조건을 가지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신의 接神이나 降神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굿에서도 神託을 행하지 않고 분부사뎐이라는 제 3 자적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 제명대

은 심방이 샤먼이 아니고 사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도 강신무인 점장이 있다. 점장이와의 관계는 전라도에서처럼 상호의존적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심방과 점장의 분업적 관계는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주도의 심방과 점장의 관계와 존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까운 전라도의 당골과 점바치의 관계, 나아가서는 오끼나와 일본 본토 등지의 종교 사제자들의 현상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라도에는 당골 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제주도의 <당을 댄 심방>과 대비될 수 있다. 일정한 신자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다만 전라도에서는 당골의 사회적 차별이 심해서 당골을 천민시하므로 그것이 직업적 天職이 되는가 하면 그것이 당골을 그만 두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천민 의식은 강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어째서 생기는 것일까. 또 하나는 당골의 세습성에 비해 비조직적이고 개인 강신무인 점바치가 세력을 급격히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강신무의 확대인 동시에 신비주의화하여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비주의화는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나 전라도에서처럼 현저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인접 지역인 오끼나와의 민간 종교자의 현상을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II. 오끼나와(冲縄)의 노로(神女)와 유다(ユダ)

오끼나와에는 노로라 불리는 神職巫가 있고 신이 내린 유다라는 무녀가 있다. 유다는 전라도의 점바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노로는 계승 학습무라는 점에서 일단 당골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비교는 별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강신무와 세습의 대립적 형태의 존재라는 점이다.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神社의 무녀는 신을 내리지 않는 학습무이지만 이에 대해 柳田國男은 원래 강신무였던 것이 그러한 요소를 상실하였

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외에 東北지방의 이다요나 야마부시(山伏) 등도 강신적 요소를 바탕으로 신앙화되어 있다.

오끼나와의 노로와 유다의 기원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학설이 있다. 주로 오끼나와의 학자들의 학설에 대해 반대의 학설을 내세워 주장한 심포지움이 행해졌고 그 결과가 출판된 바 있다(日本のシヤマニズムとその周邊. 日本放送出版協會, 1984). 필자는 일찌기 현지조사를 통하여 한국 남부의 세습무인 당골은 강신무와는 계통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다(巫系傳承考. [韓國民俗學] 1, 1969). 그 후 한국과 유사한 종교 현상이 오끼나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약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오끼나와의 샤먼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기([韓國文化人類學] 10, 1978) 때문에 필자는 전개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본고에서 이 문제를 재고하여 한국—오끼나와 문화권에서 아주 전형적인 강신무와 사제자의 대조적인 존재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전개서에서 사쿠라이(嬰井德太郎)교수는 <南西諸島の 샤머니즘의 源流>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Kreiner박사가 <일본 특히 남서제도에 있어서 소위 샤머니즘연구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논평하였다. 사쿠라이씨는 오끼나와 본도의 북쪽에 있는 토카라列島の 샤머니즘의 諸연구(早川孝太郎, 河村只雄, 嬰田勝徳, 下野敏見, 安田宗生, 鳥越皓之의 報告書)를 검토하여 강신적인 巫女性과 제의를 사제하는 祭司性을 관념적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두가지가 동시에 보존하는 미분화적 형태인 점으로 미루어 古神道の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미분화 현상은 본도에서 떨어진 離島 일수록 또 역사적으로 소급될 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여 古形(98)이 지역적으로 또는 후대에 분화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로와 유다는 원래 公의 祭司를 말하는 祭司性과, 신을 내려서 영력을 구사하여 주민의 재난이나 질병을 막아 주는 샤먼성을 구비한 종교 實修者였을 것이다. 그것이 시대의 추이와 尙王朝의 정치적 규제 등에 의해 하나는 제사성이 강한 노로가 되고 다른 하나는 주술성이 강한 유다가 되어 기능이 분화된 것이다(102-3). “남서제도에 전개되는 샤머니즘을 민족문화의 원류란 점에서;

추구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公私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지역의 종교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적 존재인 노로와 유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양자는 전적으로 別系統의 종교자로서 개별적 루트를 가지고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본래 동일한 원류에서 派生한 것이 후세에 와서 類別되게 이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당돌하게 제시하게 되면 오기나와 연구자들의 失笑를 살지 모른다. 왜냐하면 많은 오기나와학자들의 견해는 양자의 성립은次元을 달리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通說로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112)라고 통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두 가지 유형은 본래 동일한 것이었으나 분화된 것(ついに相容れない二つの系列に分岐しにのであろう: 117)이라면서 주로 宮城榮昌의 [神繩のノロの研究]를 비판하였다.

Kreiner박사는 사쿠라이씨의 논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의 견해로서는 남서제도에는 옛부터 두가지의 상이한 각각이 제도화된, 주로 여성이 되는 성직자 집단 즉 노로와 유다가 併存해 왔다고 본다”(128)고 하고, 이어서 유다의 세계관은 노로宗敎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관념체계라(ノロ宗敎とはっきり區別されに觀念體系である: 131)하면서 岡正雄씨의 연구를 인용하여 결론적으로 “남서제도에 있어서 샤머니즘은 기본적으로는 남방적인 재비민족에 의해서 가져 온 샤머니즘이고, 한편 북방에서 韓半島를 거쳐 九州에서 南下한 北方型의 요소가 얼마간 들어와 있다”(133)고 하였다.

이와같이 대립된 견해에 대해 본 심포지움에 참가한 서울대 李柱鉉교수는 한국의 “한반도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통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이 있어서 한강 이북의 소위 퍼제션에 사로잡히는 이니시에션體驗을 가지는 무당과 남쪽의 소위 당골무당이라는 세습적·제사적인 무당에 대해서 후자를 사면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가면 심방이라 하는 오기나와와 거의 같은 노로의인, 몇십년도 계속하는 세습적인 심방이 있는가 하면 유다의인 신내린 심방도 있습니다. ~중략~이러한 문제와 관련시켜서 오기나와의 유다와 노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7)라고

질문을 하니 이에 대해 사쿠라이씨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겠습니까”(元おただせば一つである、と考えてよいのではありませんか：140)라고 대답하였다. 이 계통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어도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그 이상 논의도 하지 않았다. 문제점이 정면으로 노출되었는데도 다루지 않았으나 <심포지움을 돌아보면>라는 요약문(加藤九祚, 中牧弘允)에서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겨 둔 점이 다음 연구를 촉발시키면서 보완하고 있다. 그 요약문의 일부를 인용한다. “(사쿠라이) 오끼나와의 유다와 노로의 동계통성에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론의 배경에는 분명히 自生論의 입장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다와 노로를 異系統으로 보는 종래의 학설이나 본 심포지움에서의 크라이나씨의 諸說과 정면으로 對立하고 있어서 議論의 여지가 크게 남겨져 있다. 또 남서제도의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北方샤머니즘 뿐만 아니라 남방샤머니즘의 영향관계도 무시될 수 없다. 이와같은 系統論과 自生論과의 이론적 相克은 以後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도 크게 환영할만 하다고 생각한다.”(495)

필자는 사쿠라이교수의 입론에 대해 강한 의문을 느낀다. 우선 계통론을 주장하면서 (미야기) 宮城교수의 역사적 연구를 반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쿠라이교수의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동일계통이라는 가설은 미야기교수의 역사적 실증적(적어도 17세기) 異계통설이 대립하여, 가설적 계통론과 실증적 역사적 연구 결과와 상반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Ⅱ. 降神巫와 世襲巫의 對立과 調和

한국 무속의 강신무와 세습무가 대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찌기 村山智順, 秋葉隆 등이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속 안에서의 변형으로서만 생각하였고 계통적으로 깊이 추구하지는 않았다. 필자는 처음으로 강신무와 세습무의 상반성이 변형(variation)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 즉 계통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1968년 여름 전남민속종합조사의 일원으로서 조사한 자료

에 기초하여 동년 11월에 열린 한국문화인류학 전국대회에서 <샤머니즘의 정의>라는 발제 강연에서 전남지역 당골은 협의의 샤먼의 개념에 들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다음해에 <전남 당골에 대하여>(한국문화인류학회 월례회, 구두발표, 1969. 4. 26 : 서울대시청각실 ; [한국민속학] 1호. 민속학회, 1969) <한국무속의 엑스타시 변천고>(『아세아연구』 12-2, 고대 :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곤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워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과 같은 상반된 입장이 생긴 셈이다. 이것이 한국 무속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별로 검증도 되지 않은 채 學說처럼 인용되는 예를 흔히 본다. 필자는 여기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현지조사를 통한 실증적 자료와 비교문화적 연구를 종합하여 소위 강신무와 세습무의 대립과 조화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 사료나 대부분의 종래의 연구는 거의 강신무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세습무의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세습무는 강신무와 여리가 지로 대립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대조는 단순히 계통론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분석 개념으로서 유용하다고 한 佐佐木교수의 의견과 동감이다. 계통론은 차치하고 우선 한국에서의 이 두가지 유형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위와 같은 대조성에 대해서 거의 이론이 없을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이를 계통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느냐 상이한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대조를 보다 실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남부 지방에 전형적 사회제도로써 존재하는 제주도의 심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제주도 심방(神房)

제주도에는 점쟁이와 심방이 대조적으로 존재한다. 점쟁이는 請神이나 의례집행을 占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방은 주술종교적 司祭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중점을 둔다(현용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편, 88). 또 入巫과정을 보면 “세습으로 입무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부모 또는 그 어느 일방이 심방이면 그 자식은 남녀 어느 쪽이나 그 무업을 계승하여 심방이 되는 것이다. ~중략~만일 자녀가 그 부모의 무업을 계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녀가 병을 앓게 된다고 한다. 이 병을 심방들은 조상을 학대한 때문이라 말하는데, 이 조상이란 그의 무업의 수호신이요, 인수하여야 할 무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략~질병 때문에 입무하는 경우는 대개, 오랜 병으로 신음하다가 占을 하니 팔자가 사나와 그러는 것이니 심방이 되어야 병이 낫겠다 하므로 입무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래서 심방이 되는 것을 <팔자 그르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심방이 되는 것은 팔자에 의한 것이며 또 심방은 본질적으로 팔자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라는 관념을 나타내어 주는 말이다. ~중략~ 무격과 혼인해서 저절로 되었다는 경우이다. 이것은 대체로 女巫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방은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있으므로 良家의 子女들은 그들과 결혼하려 하지 않지만, 再婚이라든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심방과 결혼하게 된다.”(상계서 : 91-92) 심방들은 심방끼리 內婚을 하며 사회적으로 차별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조직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부락회의 등에도 거의 발언을 못하고 있다(상동 : 95).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회동하고 협동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였고 <神房廳>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상동).

우리는 심방에게서 세습성, 친민성, 의례의 司祭性 등을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무병 入巫라는 현상도 있으나 그것도 강신무에게서 전형적인 것처럼 입무조건으로서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방의 운명적 조건이 선행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자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무병과는 다른 것 같다. 이것은 오끼나와 아마미(奄美)의 샤먼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현용준교수는 <신총아기>制가 단골제의 한 현상으로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상동)라고 하고, 심방은 의례를 사제하는 사제자이기는 하되 “샤먼이나 무당이 歌舞로써 憑神하고, 그 빙신 상태에서 自力으로 神靈과 직접 交通하며 神意를 알아내어 神語로 그것을 전달한다는 우리의 지

식이 옳은 것이라면 神房은 이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아니 할 수 없다.”(현용준, 제주도 무격의 직능자로서의 성격,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 539)

V. 比較 考察

제주도의 심방과 점쟁이의 관계는 오끼나와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세습무와 강신무의 대조적 존재이다. 분업적이면서도 대립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상례이다. 때로는 상호 영향 관계에 의해 어느 일방이 다른 것을 모방하거나 兩方이 협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相克관계라는 점이다. 모두 宗教性 자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상통하는 점이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 다른 유형이다.

둘째 사제자에 의한 의례 중심보다는 신탁 등 신비적 무속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신비주의의 팽창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촌락공동체인 마을이 이질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조직을 떠나 개인적으로 강신무에 경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한편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도 신비주의의 급팽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비교적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세습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무당의 신분을 갖는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세습무를 남방문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노로와 심방은 혈연적으로 세습하는 점이 일치한다. 한국의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만 노로의 경우는 생물학적 조건 위에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또 노로의 경우 부계의 여성(딸, 며느리)이 세습한다. 그리고 한국의 세습무에 천민성이 있는데 비해 노로의 사회적 지위는 높다.

VI. 結 論

오끼나와의 세습무와 강신무의 대조성을 기원론적으로 계통을 논한 경우가 있으나(柳田國男 등) 宮城榮昌교수의 역사적 실증적 연구에 의해 두 유형의 본질적 상이성이 확실히 드러났다. 후자의 경우는 계통론을 부정하기는 하지만 계통론 자체에 관한 연구는 아니다. 필자도 상이한 계통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실증적 차원에서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설과 추측을 중심으로 계통론적 단계를 넘어서 실증적 연구를 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실증적 자료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종교적능자의 기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두가지 유형에 대한 인식은 분석개념으로도 유용하다.

한반도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 남방문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점 岡正雄교수가 오끼나와 무속을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의 이중구조를 설명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샤머니즘은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존재하고 있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지역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심방의 무병도 지역적 차이가 인정된다. 무병만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도 秋葉隆이 가정했던 것처럼 시베리아의 전형적 샤머니즘이 한반도의 중간에서 경계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